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어머니의 신체(身體)는 어떨까?(왕호응 씀)

이것은 어떤 일본(日本) 여성(女性)이 어머니의 신체가 어떤지를 점(占)친 사례(事例)이다. 어머니는 1954년생(生)이며, 명효(命爻) 임오(壬午)이다. 계묘년(癸卯年) 임술월(壬戌月) 임자일(壬子日) (순공(旬空): 인묘(寅卯))에, 택천괘(澤天夫)가 천택리(天澤履)로 변(變)하는 괘(卦)를 얻었다.

癸卯年 壬戌月 壬子日

八卦

澤天夫(坤土宮) 之 天澤履(艮土宮)

兄壬戌 | 白兄丁未 | 伏孫癸酉
蓋馬月 | 花鞍天 | 帳害鬼花

世孫壬申 | 蛇孫丁酉 | 世伏財癸亥
帳馬地 | 帳害鬼花 | 閨花劫喜亡

父壬午 | 勾財丁亥 | 伏兄癸丑
將馬災 | 閨花劫喜亡 | 天花鞍

兄丁丑 || 朱兄甲辰 | 伏官乙卯
天花鞍 | 馬月蓋 | 花乙害空

應官丁卯空 | 青官甲寅空 | 應伏父乙巳
花乙害空 | 地馬 | 亡乙花劫

父丁巳 | 玄財甲子 | 伏兄乙未
亡乙花劫 | 閨馬災將 | 花鞍天

卦身: 兄辰

世身: 四爻

空亡: 寅卯

부모(父母)를 용신(用神)으로 삼는다. 부모 사화(巳火)가 이효(二爻)에 복장(伏藏)했는데, 월(月)이 방부(幫扶)하지 않고 일(日)이 극(剋)하니 휴수(休囚)하다. 이효는 집이 되니, 병(病)으로 집에 누워 있다. (응험(應驗)) 원신(元神) 인목(寅木)이 이효에서 공망(空亡)이고, 육효(六爻)에 입묘(入墓)했는데, 원신은 사유(思惟)를 주(主)하며 입묘했으니 머리가 흐릿하고 몽롱(朦朧)함을 주하여, 노인성(老人性) 치매(癡呆)이다. (응험, 기억력(記憶力) 감퇴(減退), 노인성 치매.) 이효는 다리가 되고, 사화반괘(返卦)는 손괘(巽卦)가 되니, 또한 다리를 주하여, 다리가 좋지 않다. (응험, 오른 다리 고

관절(股關節) 통증(痛症).) 인목 반괘는 간괘(艮卦)가 되고 간은 자궁(子宮)이 되니, 부인과(婦人科) 방면(方面)이 불리(不利)하다. (응험, 자궁암(子宮癌).)

삼효(三爻) 진토(辰土)가 발동(發動)했는데, 진토는 기신(忌神)의 묘고(墓庫)이고, 삼효는 침대가 되는데 발동하면 곧 불안(不安)하니, 수면(睡眠)이 좋지 않음을 주한다. (응험)

기신은 수(水)가 되는데, 일에 임하여 부모를 극하니, 자수(子水) 반괘는 감괘(坎卦)가 되고 감은 귀가 되니, 청력(聽力)이 좋지 않다. (응험)

일진(日辰)이 초효(初爻)에 입괘(入卦)하여 현무(玄武)에 임했으니, 자수는 북(北)쪽이 되고 현무는 차갑고 습(濕)함을 주한다. 거주(居住)하는 곳의 빛이 좋지 않아, 비교적 축축하고 습하다. (응험, 어머니의 침실(寢室)이 북쪽에 있어 빛이 부족(不足)하고 비교적 축축하고 습하다.)

명효가 부모에 치(值)하여 기신 자수를 충(沖)하니, 어머니에게 잠시(暫時) 동안은 생명(生命)의 위험(危險)이 없음을 주한다.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육효(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母亲身体如何？（王虎应写）

这是某日本女占母亲身体如何的案例？于癸卯年壬戌月壬子日（旬空：寅卯），得泽天夬之天泽履。母亲1954年生，命爻壬午。

白虎	兄弟未土×	兄弟戌土
螣蛇	子孙酉金'世	
勾陈	妻财亥水'	
朱雀	兄弟辰土○	兄弟丑土
青龙	父母巳火	官鬼寅木'应
玄武	妻财子水'	

以父母为用神。父母巳火伏藏在二爻，月不帮扶日克为休囚。二爻为宅，卧病在家。（验）

元神寅木在二爻空亡，入墓在六爻，元神主思维，入墓主脑子迷糊，老年痴呆。（验，记忆力下降，老年痴呆。）

二爻为腿，巳火返卦为巽，也主腿，腿不好。（验，右腿股关节疼。）

寅木返卦为艮，艮为子宫，妇科方面不利。（验，子宫癌。）

三爻辰土发动，辰土为忌神墓库，三爻为床，发动则不安，主睡眠不好。（验）

忌神为水，临日克父母，子水返卦为坎，坎为耳朵，听力不好。（验）

日辰入卦在初爻，临玄武，子水为北面，玄武主寒湿。居住的地方光线不好，比较潮湿。（验，母亲卧室在北面，光线不足，比较潮湿。）

命爻值父母，冲忌神子水，主母亲暂时没有生命危险。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 융(인스타: sangjun2495) (융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후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귀곡자(鬼谷子): 천하(天下)의 기국(棋局)

제四十장 산속의 사람[산중인(山中人)]

소식(消息)이 운몽산(雲夢山)에 전해졌을 때는 이미 이듬해 봄이었다.

왕후(王詡)는 동굴(洞窟) 입구(入口)의 청석(靑石) 위에 앉아, 소식을 전하는 그 상인(商人)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환연(環淵)이 그의 곁에 서 있었는데, 얼굴빛이 엄숙(嚴肅)하고 무거웠다.

“사제(師弟).....”

왕후(王詡)는 손을 저어 그에게 말하지 말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그는 몸을 일으켜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 죽간(竹簡) 더미 속에서 한 권(卷)을 뒤져내어 펼쳐놓고 보았다.

그것은 아주 여러 해 전, 소진(蘇秦)이 처음 귀곡(鬼谷)에 왔을 때 썼던 한 편(篇)의 습작(習作)이었다. 글씨체가 삐뚤삐뚤하여 한눈에 보아도 초학자(初學者)의 숨씨임이 분명(分明)했다. 그러나 내용(內容)은 대단히 흥미(興味)로웠다——

그는 낙양(洛陽)의 풍토(風土)와 인정(人情)을 적었고, 어릴 적 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던 일을 적었으며, 그의 어머니가 실을 잣던 모습과 그의 동생(同生)이 그를 쫓아다니며 과자를 달라고 조르던 옛일을 적어 놓았다.

왕후는 보고 또 보다가, 문득 웃음을 지었다.

“이 아이가,” 그는 중얼거렸다. “참 잘도 썼구나.”

환연은 동굴 입구에 선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時間)이 지난 후(後), 왕후는 그 죽간 한 권을 잘 거두어 본래(本來)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는 동굴 밖으로 걸어 나와 청석 위에 서서, 멀리 있는 수(數)많은 산(山)들을 바라보았다.

산 사이에는 구름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변화무쌍(變化無雙)하여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는 문득 아주 여러 해 전, 소진과 장의(張儀)가 산을 내려가던 그날, 자신(自身)과 환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곳에 서서 그 두 젊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그들은 젊고 기세(氣勢)가 성(盛)하여, 천하(天下)가 모두 자신들의 것인 줄로만 알았었다. 이제는 한 명(名)은 타국(他國)의 길거리에서 죽었고, 한 명은 위국(魏國)의 저택(邸宅)에서 죽었다.

모두 떠나간 것이다.

환연이 걸어와 그의 곁에 자리를 잡고 섰다.

“사제, 마음을 좀 편하게 먹게나.”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문득 물었다. “사형(師兄), 당신이 말해보십시오. 스승님께서 당년(當年)에 우리를 제자(弟子)로 거두셨을 때, 우리가 오늘날 이 지경(地境)까지 걸어오게 될 줄을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환연은 한동안 침묵(沈默)을 지키다가 말했다. “모르겠네.”

왕후가 웃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곳에 서서, 먼 곳의 산들을 바라보았다.
석양(夕陽)이 서(西)쪽으로 지며, 금(金)빛의 잔광(殘光)이 그들의 몸 위로 쏟아졌다.

저 멀리, 범저(范雎)라고 불리는 그 젊은이가 마침 산골짜기 물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으니, 바깥 세상(世上)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산속의 세월(歲月)은 길기만 하다.

그 제자들의 일들은 마침내 전설(傳說)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여전(如前)히 여기에 있다.

이 산골짜기를 지키고, 이 초가(草家)집을 지키며, 저 죽간들을 지키고 있다.

언젠가 하루, 그들 역시(亦是) 그 제자들과 똑같이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산은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시냇물도 여전히 흐를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여전히 누군가는 기억(記憶)할 것이다.

에필로그

많은 해가 흐른 후, 사마천(司馬遷)이라 불리는 한 젊은이가 《사기(史記)》를 집필(執筆)할 때, 모든 자료(資料)를 샅샅이 뒤졌으나 오직 이와 같은 몇 구절(句節)의 기록(記錄)만을 찾아내었을 뿐이다——

“소진이라는 자는 동주(東周) 낙양 사람이다. 동쪽으로 제국에서 스승을 섬겼고, 귀곡(鬼谷) 선생(先生)에게 그것을 익혔다.”

“장의라는 자는 위국 사람이다. 처음에 일찍이 소진과 함께 귀곡선생을 섬기며 학문(學問)을 닦았다.”

귀곡자 본인(本人)에 관해서는, 오직 지극(至極)히 짝막한 몇 마디 말뿐이었다——

“혹자(或者)가 말하기를, 귀곡자는 전국(戰國) 시대(時代)의 은사(隱士)로 귀곡에 거주(居住)하였기에 이로써 호(號)를 삼았다고 한다. 소진과 장의가 그를 스승으로 섬겨 종횡(縱橫)의 술책(術策)을 받았다.”

아무도 그의 성명(姓名)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지 못했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제자들은 도리어 온 천하의 전국시대를 뒤흔들어 놓았다.

어떤 사람은 그가 신선(神仙)이라 과거(過去)와 미래(未來)를 모두 예견(豫見)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요괴(妖怪)라 이마 위에 네 개(個)의 육지(肉痣)가 돋아 있었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그가 그저 평범(平凡)한 노인(老人) 네일 뿐이어서 깊은 산속에 숨어 몇 명(名)의 제자들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진상(真相)이 어떠한지는 이미 아는 사람이 없다.

오직 그 산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

오직 그 시내만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

오직 그 이야기들만이 여전히 인간(民間)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마치 이 산골짜기의 바람이 천 년(千年) 동안 불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불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전체(全體) 글 끝)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第四十章 山中人

消息传到云梦山时，已经是第二年春天。

王翊坐在洞口的青石上，听那个送信的商人说完，久久没有动。

环渊站在他身边，脸色凝重。

“师弟……”

王翊摆了摆手，示意他不要说话。

他站起身，走向洞中，从那堆竹筒里翻出一卷，摊开来看。

那是很多年前，苏秦刚来鬼谷时写的一篇习作。字迹歪歪扭扭，一看就是初学者的手笔。可内容却很有意思——

他写的是洛阳的风土人情，写他小时候在街上看人卖艺，写他母亲纺线的样子，写他弟弟追着他要糖吃的往事。

王翊看着看着，忽然笑了。

“这孩子，”他喃喃道，“写得真好。”

环渊站在洞口，看着他的背影，没有说话。

过了很久，王翊把那卷竹筒收好，放回原处。

他走出洞外，站在青石上，望着远处的群山。

山间云雾缭绕，变幻莫测。

他忽然想起很多年前，苏秦和张仪下山那天，他和环渊并肩站在这里，望着那两个年轻人的背影。

那时他们年轻气盛，以为天下都是他们的。

如今，一个死在异国街头，一个死在魏国府邸。

都走了。

环渊走过来，在他身边站定。

“师弟，想开点。”

王翊点了点头。

“我知道。”

他顿了顿，忽然问：“师兄，你说，师父当年收我们做弟子的时候，有没有想过，我们会走到今天这一步？”

环渊沉默了一会儿，说：“不知道。”

王翊笑了。

“我也不知道。”

两人并肩站在那里，望着远方的群山。

夕阳西下，金色的余晖洒在他们身上。

远处，那个叫范雎的年轻人正在山涧边读书，浑然不知外面发生了什么。

山中岁月长。

那些弟子们的事，终于成了传说。

而他们，还在这里。

守着这山谷，守着这茅屋，守着那些竹筒。

直到有一天，他们也会像那些弟子一样，离开这里。

可这座山，还会在。

这溪水，还会流。

那些故事，还会有人记得。

尾声

多年以后，有一个叫司马迁的年轻人，在写《史记》的时候，翻遍了所有的资料，只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기인 고사(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找到这样几句记载——

“苏秦者，东周洛阳人也。东事师于齐，而习之于鬼谷先生。”

“张仪者，魏人也。始尝与苏秦俱事鬼谷先生，学术。”

关于鬼谷子本人，只有寥寥数语——

“或曰，鬼谷子，战国时隐士，居鬼谷，因以为号。苏秦、张仪师之，受纵横之术。”
没有人知道他叫什么名字，没有人知道他活了多久，没有人知道他葬在哪里。

可他的弟子们，却搅动了整个战国。

有人说他是神仙，能算过去未来；有人说他是妖怪，额头上长了四颗肉痣；有人说他只是个普通的老头，躲在深山里教几个学生。

真相如何，已经没有人知道了。

只有那座山，还在那里。

只有那条溪，还在流淌。

只有那些故事，还在人间流传。

——就像这山谷里的风，吹了一千年，还在吹。

(全文完)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순양궁(純陽宮)의 선석(仙石)이 사람을 구제(救濟)하다

태원(太原) 순양궁은 옛 성(城)에서 이름난 유서(由緒) 깊은 도교(道敎) 사원(寺院)으로, 그윽하고 고아(高雅)한 멋이 있으며 역사적(歷史的) 깊이가 유구(悠久)하니, 사원 내(內)에 보존(保存)되어 있는 한 덩이의 천연(天然) 기석(奇石)에는 선석이 세상(世上)을 구제하고 평범(平凡)한 사람을 널리 제도했다는 오래된 전설(傳說)이 전(傳)해 내려오고 있다. 순양궁은 처음 창건(創建)된 연대(年代)가 오래되었으며, 옛날에는 향(香)불이 왕성(旺盛)하여 왕래(往來)하며 복(福)을 기원(祈願)하는 백성(百姓)들이 끊이지 않았고, 사원 내는 고요하고 그윽하여 사시사철 신선(神仙)의 기운(氣運)이 감돌았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기석은 바로 인간(人間) 세상을 유람(遊覽)하던 신선이 변(變)한 것으로, 도교 사원 속에 은닉(隱匿)하여 굳이 자신(自身)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세상을 구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 오로지 평범한 백성들의 근심과 어려움을 해결(解決)해 주었다. 옛날에 태원 성 안의 백성들은 생활(生活)이 빈고(貧苦)하여 역병(疫病)과 재해(災害)가 자주 발생했으니, 백성들은 항상(恒常) 고통(苦痛)을 겪었으나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 무릇 마음속에 정성(精誠)스러운 참마음을 품은 선량(善良)하고 순박(淳樸)한 백성들이 와서 복을 기원하며 기석을 어루만지고 성심(誠心)으로 소원(所願)을 빌기만 하면, 대부분(大部分) 소원을 순조(順調)롭게 이루고 흥(凶)을 만나도 길(吉)로 바뀔 수 있었다.

그러나 기석은 극히 영험(靈驗)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꿰뚫어 보았다. 만약(萬若) 마음속에 탐욕(貪欲)을 품었거나 요행(僥倖)을 바라는 사람이, 망령(妄想)되어 이 소원을 빌어 의(義)롭지 못한 재물(財物)을 도모(圖謀)하거나 타인(他人)을 모함(謀陷)하려 든다면, 설령 날마다 무릎 꿇고 절하며 소원을 빌지라도 끝내 한 가지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며, 심지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일찍이 어떤 부상(富商)이 기석의 힘에 의지(依支)하여 장사를 독점(獨占)하고 폭리(暴利)를 취(取)하고자 누차(屢次) 와서 절을 올렸으나, 최종적(最終的)으로 장사가 쇠락(衰落)하고, 가재(家財)를 다 탕진(蕩盡)하게 되었다.

오래 지나다 보니 민간에는 곧 "순양궁의 신선 돌은 오직 착한 사람만을 구제한다"는 말이 전해졌다. 천백 년(千百年) 이래(以來)로 순양궁은 여러 차례 보수(補修)와 세월(歲月)의 변화(變化)를 거쳤으나, 기석은 고요히 마당 가운데 우뚝 서서 무수(無數)한 인간 세상의 사람 사는 모습을 묵묵(默默)히 지켜보고 있다. 이 천 년을 전해 내려온 전설은 또한 언제나 태원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상대(相待)함에 마땅히 마음속에 선의(善意)를 품고 본심(本心)을 굳게 지켜야 하며, 성실(誠實)로써 타인을 대하고 착함으로 자신을 세워야 비로소 해마다 평안(平安)하고 순조로워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한다.

纯阳宫仙石渡人

太原纯阳宫是老城知名古观，清幽雅致、底蕴悠长，宫内留存的一块天然奇石，流传着仙石济世、普度凡人的古老传说。纯阳宫始建年代久远，古时香火旺盛，往来祈福的百姓络绎不绝，宫内静谧清幽，常年仙气缭绕。

相传这块奇石乃是游历凡间的仙人所化，隐匿道观之中，不显山不露水，却拥有济世之力，专为寻常百姓排忧解难。古时候，太原城中百姓生活贫苦，疫病、灾害时常发生，百姓常常饱受疾苦，却无处求助。但凡心怀赤诚、善良淳朴的百姓前来祈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민간 고사(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福, 触摸奇石、诚心许愿, 大多能够顺遂心愿, 逢凶化吉。
但奇石极为通透, 最辨人心。若是心怀贪念、投机取巧之人, 妄图许愿谋取不义之财、算计他人, 即便日日跪拜许愿, 也终将一无所获, 甚至得不偿失。曾有富商想凭借奇石之力垄断生意、谋取暴利, 屡次前来祭拜, 最终生意衰败、散尽家财。
久而久之, 民间便流传着“纯阳仙石, 只渡善人”的说法。千百年以来, 纯阳宫历经修缮更迭, 奇石静静伫立院中, 见证无数人间烟火。这个流传千年的传说, 也时刻提醒着太原百姓, 为人处世当心存善意、坚守本心, 以诚待人、以善立身, 方能岁岁安稳、顺遂无忧。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웅(인스타: sangjun2495) (웅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

왕호응(王虎應) 도서 소개(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추명서(推命書)》15

일본어판(日本語版) 《추명서(推命書)》는 앵전호문(櫻田虎門, 사쿠라다 코몬)의 저작(著作)이다. 이 사람은 센다이번(仙台藩)의 유학자(儒學者)로 호(號)는 고부자(鼓缶子)이며, 역학(易學)과 오행학(五行學)을 겸하여 연구했다. 앵전호문의 《추명서》는 일본 문정(文政) 연간(年間, 약 1818년)에 간행(刊行)된 최초로 체계적(體系的)으로 중국(中國)의 사주추명(四柱推命)을 번역하여 소개한 전문서이다. 서승(徐升)의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일본식 선장본(線裝本) 상·중·하 삼권본(三卷本) 형태로 채택(採擇)하였으니, 일본 사주추명의 초석을 다진 문헌(文獻)이다. 동시에 저자(著者)가 명리(命理)를 전문적으로 정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번역의 정밀도와 체계의 부합 면에서 역사적(歷史的) 한계가 존재한다.

학술맥락: 강호(江戶) 중기(中期)에 중국의 사주추명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앵전호문은 자신(自身)의 유학과 역학 및 오행학적 축적을 결합(結合)하여 최초로 체계적인 번역 소개를 완성(完成)하였다. 아울러 최초로 “단역(斷易)”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명명(命名)함으로써, 후속(後續) 일본 추명학 발전(發展)의 전문 용어(用語) 기초를 확립하였다.

역사의의: 일본 추명학의 시조(始祖) 작품으로 사주(四柱: 년, 월, 일, 시), 간지(干支), 오행 등 핵심틀을 명확(明確)히 하였으며, 명리 술수(術數)가 민간으로부터 학술적 시야(視野)로 들어오도록 추동(推動)하였다. 명치(明治) 이후 송본의량(松本義亮) 등의 학자들이 이 기초 위에서 “사주추명”이라는 명칭을 확립하였다. 연재(連載) 중 열 다섯 번째.

日文版《推命書》是櫻田虎門(さくらだこもん)的著作。此人为仙台藩儒学者，号鼓缶子，兼治易学与五行学。櫻田虎門的《推命書》是日本文政年間(約1818

年)刊行的首部系統譯介中國四柱推命的專著，以徐升《淵海子平》為底本，採用和刻線裝上中下三卷本形制，是日本四柱推命的奠基文獻，同時因作者非專精命理，存在翻譯精度與體系适配的歷史局限。

學術脈絡：江戶中期中國四柱推命傳入日本，櫻田虎門結合自身儒易與五行學積累，完成首部系統譯介，首次將“斷易”命名為“五行易”，為後續日本推命學發展奠定術語基礎。

歷史意義：是日本推命學的开山之作，明确了四柱(年、月、日、时)、干支、五行等核心框架，推动命理术数从民间传入学术视野，明治后松本义亮等学者在此基础上确立“四柱推命”名称。連載之十五。

'증산복역' 역자 '이두 김선호' 필독 권장 자료
왕호응(王虎應) 일일 감상(2026년6월10일 웨이보 공개)

자료 없음



**그림 보고
성어(成語) 맞히기**

당신의 성어에 대한
이해력을 시험해 보세요!
이 그림들이 어떤 성어를
나타내는지 맞춰보세요.
사고력을 넓히고
훈련하세요!

출 처: <https://weibo.com/u/6819693315>
번 역: Gemini /응(인스타: sangjun2495) (응선생 휴대폰: 010-5318-6999)
자 료: 고미승, 김정은, 김종윤, 안은선 등 솔루션: 오종현